

보성, 인구감소 반전 가능성 불 지펴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인구 감소율 ↓·출산율 ↑ 합계출산율 전남 19→8위...소멸위기 극복 성공사례

보성군이 전략적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 감소를 둔화하고 출산율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때 18만명에 달했던 보성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출산율 반등과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은 출산율 증가와 청년 정착 유도 사업의 성공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군은 출산 장려 정책과 청년 정착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구감소율을 2%대에서 1.7%로 둔화시키며, 인구 감소 추세 반전에 성공했다. 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셋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

원, 셋째아 10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1~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산후 조리비, 난임부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출생아 1인당 최대 1억1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보성군의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9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상승해 전남 22개 시·군 중 19위에서 8위까지 올라섰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벌교읍에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해



청년마을(그린티모시리) 조성사업 '일하러와 보성' 현장실사에서 김철우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및 탄소 중립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지

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부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영농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가정의 전입을 유도하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 학교 교육을 연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문덕면은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김철우 군수는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청년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보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th66@gwangnam.co.kr

LOCAL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곡성, 개학기 불법광고물 정비 안전·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곡성군은 최근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 추진 중이며, 곡성군과 전남곡성군교육광고협회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에는 조상래 곡성군수가 함께 참여해 불법현수막 철거 활동을 직접 진행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자들은 주요 도로변,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철거하며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이번 정비기간 중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24일까지 모집...3년 연속 진행

고흥군은 오는 24일까지 2025년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차범근축구교실은 2022년 고흥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열정적으로 참가할 정도로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다.

이번 축구교실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강사진은 대한축구협회 등 축구 전문 지도자로 구성돼 주 1회(수요일, 1~3학년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 4~6학년은 오후 4시 45분부터 5시 45분) 운영될 예정이다.

차범근 감독이 직접 참여해 아이들을 지도하며, 모든 참가 학생에게 유니폼과 훈련용품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관을 참고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어린이를 위한 대표 스포츠콘텐츠로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만족한 만큼, 아낌없이 지원해 유소년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순천, 철강기업 위기 극복 해법 모색

노관규 시장 울촌산단 방문 간담회 갖고 현장 목소리 청취

순천시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촌산단 철강기업 2개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울촌·해룡산단 협의회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철강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기업의 상생 협력방안, 젊은 인재를 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

류청(㈜세아제강 공장장)은 "현재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세계 지원 확대, 물류 비용 절감 대책 마련,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최득용 달성취대표이사는 "이번 순천시의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노관규 순천시장이 울촌산단에 위치한 세아제강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철강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철강산업은 순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며 "전남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기업 정보를 한곳에 모은 '원스톱 기업지원포털' 운영, 기업애로사항 해결 창구 '카카오톡채널 및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수출한 선적비 및 장기제작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이차지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

취재현장에서

꽃 있는 축제 만들려면

김 귀 진
광양취재담당



2개월 전에 개최 시기를 확정하고 축제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똑같은 국내 유명 꽃축제인 '진해군항제 벚꽃축제'는 이중무공선 양군항제위원회가 개최기를 맞추기 위해 일기불순 등 기우를 감안해 축제 1개월 전에 시기를 정한다.

실제로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개최했지만 올해는 6일 늦춰 29일부터 개최함으로써 개최 시기를 최대한 맞췄다.

꽃축제에는 주인공인 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다. 매화축제도 내년부터는 개최 1개월 전에 시기를 확정했으면 한다.

광양시가 아무리 차 없는 거리, 일회용품과 바가지요금 없는 3무 축제를 만들고 섬진강 열기구 체험, 매실하이볼 체험 등 갖가지 새로운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고 해도 축제장에 꽃이 없으면 방문객들은 찾지 않는다.

매화가 만개하고 상춘객이 대거 찾아드는 매화축제를 내년 봄에는 꼭 보고 싶은 바람이다.

전남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 중 하나인 '광양매화축제'가 늦은 개화로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24회째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졌지만 매화축제 현장과 주변에 매화꽃이 피지 않아 상춘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축제 시작 무렵에 없던 꽃이 겨우 끝날 무렵에서야 30% 정도가 피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축제가 끝난 뒤에야 제대로 된 매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꽃축제에 꽃이 없는 어이 없는 축제가 연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방문객수도 지난해보다 2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왜 꽃 없는 축제가 연출됐을까. 이는 한마디로 일기불순 등으로 개최기를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OS

영남대학교·세명대학교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구립대리점**

062) 376-5425

NAVER 나코스